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상도1동과 대방동 주민센터가 주민중심의 복지체계의 혁신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상도1동과 대방동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동주민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상도1동과 대방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어르신 복지플래너

- 65세, 66세, 70세 전체 어르신의 포괄적인 건강 평가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5세 어르신 : 사회복지직공무원과 동마을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 66세 어르신 : 생애건강검진 독려 및 건강검진결과 상담
- 70세 어르신 : 동마을간호사 직접 방문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 이내 임산부, 대상자의 출생아가 만2세 되는 시기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는 물론 보육관리와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출산 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를 제공합니다.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 이웃주민과의 촘촘한 관계망을 통해 기존의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숨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시에 복지서비스를 연결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우리동네주무관

- 동의 전직원이 전담구역을 맡아 마을복지통반장과 함께 현장을 순찰하며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등 주민생활의 전반을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복지상담전문관 시행으로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공무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에게 주거·고용·교육·보건·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존 마을활동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인터뷰>

기존 직원, 동마을간호사, 복지통반장, 상도1동·대방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자문단